HYUNDAI
MOTOR GROUP

미국 장단기 전략

이란 전쟁 다음 아젠다는 중간선거

미국주식 | 하장권

내일의 차이
현대차증권

Executive Summary

Summary

다사다난한 미국 증시. 케빈 워시 연준 의장 지목, 엔트로픽 사태, 이란 전쟁, 사모대출펀드 그리고 최근의 터보퀀트 등 쉴 새 없이 변동성 자극할 이벤트 발발. 그럼에도 이번 AI 혁신 사이클 어느 때 보다도 강한 미국 증시 이익. 되려 이란 사태로 하여금 향후 1~2개 분기 비미국 대비 미국 강세 재개될 것으로 예상하며 2026년 S&P 500 Target 8,000pt 유지. 2Q는 침체 수준으로 저렴해진 AI 대형주 중심의 상승 되돌림이 우선될 것으로 예상하며, 중간선거 영향권(2~3Q)에선 되돌려진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 재개될 것으로 예상

1. 이란 사태, 미국 강세 재개 트리거

-미국-이란 양국에서 출구 전략에 대한 의지 확인되며 미 증시는 바닥 확인하는 과정에 진입

-통상 지정학 이벤트 발발 이후 후행적으로 이익 추정치 하향 동반되나 현재 이익 추정치는 가속 흐름 지속

-더군다나 이미 AI 대형주 멀티플 프리미엄은 5년래 최저치 도달한 상황이기에 미 증시 하락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

2. 다음 아젠다는 중간선거

-11월 예정된 중간선거, 통상 중간선거 영향권(2~3Q)엔 Risk-off 장세 출현 (VIX↑, 알파 장세 ↑, 주도주로의 집중)

-이미 부담 없는 증시 레벨. 그리고 대통령 2기 중간선거 수익률 검증 등을 고려하면 평시 대비 부담 없는 중간선거 시즌 예상

-과거 트리펙타 상황에서도 유사한 어노멀리 현상 확인. 이란 사태로 되돌려진, 그리고 다시금 재개될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로 대응하길 권고

3. 잠깐 정체됐을 뿐 상승 동력 여전

-과거 2차 오일 쇼크, 러-우 전쟁과 같은 인플레 충격을 우려하는 증시. 다만, 수요 동반되지 않는 상황이기에 AI 혁신(EPS), 유동성(PER) 동력은 여전히 유효

-장기적으로 M7 영향력 축소, 소외주의 주도주화 지속될 것. 다만, 이익 견인해온 AI 대형주 밸류 프리미엄은 침체 구간만큼 저렴, 2Q 상승 되돌림 주도할 것

3. 재개될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

-이란 사태로 되돌려진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 재개될 것으로 예상. 귀금속보다는 구리/암호화폐 제시